

인력난 해결위해 불법·탈법 고용 예사

기획 없어도, 보여서도 안되는... (2) 농어촌 인력전쟁

고용허가제·선원취업제도 등 합법 경로 있지만 고용 과정 복잡·인력 부족 등 이유로 불법 자행 정확한 현장 인력 수요 파악·사후 관리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 어떻게 고용되나

농·수·축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이주 제도는 크게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선원취업(E-10),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단기취업(계절근로자·C-4) 등으로 나뉜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비자 세부 유형 별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으로 제한돼 적용되며 최대 4년 10개월 간 국내 체류가 허가된다. 고용주가 고용복지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여러 절차를 거쳐 사업장에 최종 배치되는 방식이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농업업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농가 당 3~5명 가량 배정할 수 있으며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제도권 안에서 인력난 해소 불가... 미등록은 전화 한 통이면 OK”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다.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도내 1차산업의 노동 구조와 제주 무사중 제도가 연결되면서, 제주에는 등록보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기형적인 노동 시장이 형성돼 있다.

사업장에서 미등록 외국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정식 고용 절차를 거치는 데 필요한 인력 수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이 대표

적이다.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많아봐야 최대 5~6명인 데다, 영농 규모에 따라 정해진 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대기 기간이 길어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수급받기도 어렵다. 특정 업종의 경우 계절성이 있어 시기에 따라 외국인 고용 수요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불법에 손을 대도록 부추긴다.

농어민들은 미등록 외국인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쉽게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미등록 외국인의 잠적 취업 장소가 된다. 미등록 외국인인 그들을 관리하는 인력 중개업소 사이에선 이미 하나의 네트워크 혹은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장에서 ‘반장’으로 불리는 인력 중개업소 혹은 브로커 1명이 적게는 10명 내외, 많게는 100명 이상의 미등록 외국인을

관리하며 사업장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지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을 단체로 제주도에 데려오는 방식으로 고용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인력의 제주 유입이 차단되자 도내 남은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선 ‘몸값 담합’ 현상이 벌어졌다. SNS 등을 통해 알다시피 인건비를 공유하고, 그에 맞춰 각자 사업장에 인건비 상승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당장 일손이 필요한 고용주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높은 가격에 이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산업 현장의 정확한 인력 수요를 파악하기도 어려워졌다. 우려했던 대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추정하는 미등록 외국인 수는 주로 무사중 제도를 통해 입국한 이후 출국하지 않은 숫자를 집계한 수치다. 체류기간 내 불법 출도하거나, 체류기간을 벗어나 타지역으로 이동해 잠적한 통계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농어촌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수는 물론, 현장에서 필요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도영기자

흥기 휘둘러 지인 살해한 60대 자수 11일 새벽 편의점 인근서 술 마시던 중 범행

제주시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60대 자수(이하 A씨)가 지인이 휘둘러 흥기에 질려 술 마시던 중 범행

11일 새벽 편의점 인근서 술 마시던 중 범행

적에 나섰으며, B 씨는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인근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와 B 씨는 동네 주민 2명과 함께 편의점 간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으며,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나고 A 씨와 B 씨만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12일 A 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도영기자

적에 나섰으며, B 씨는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인근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와 B 씨는 동네 주민 2명과 함께 편의점 간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으며,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나고 A 씨와 B 씨만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12일 A 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도영기자

나이 어린 세 딸 추행 40대 범정구속

지인에게도 징역 1년6월 선고

어린 세 딸을 추행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 사건은 딸 중 한 명이 학교 선생남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하면서 드러났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서귀포시 자택에서 9살, 10살, 11살 난 세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세 딸 중 한 명이 피해 사실을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에게 알리자 따귀를 때리기도 했다.

B씨는 2020년 A씨의 집에서 세 딸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딸 중 한 명이 학교 선생남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하면서 드러났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비양도 인근서 어선 좌초 제주해경, 선원 9명 구조

제주시 한림항을 출발해 비양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2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인근 해상을 운항 중이던 A호(45t·연승·한림 선적·승선원 9명)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해경은 500t급 경비함정 5척과 민간해양구조대를 급파해

은 날 오전 11시41분쯤 현장에 도착, 오른쪽으로 약 30도가량 기울어진 상태로 좌초된 A호를 발견했다.

A호는 운항 중 수심이 얇은 곳에 좌초되며 선수 아래쪽 부근에 파공이 발생해 기관실이 1m 정도 침수된 상태였다.

해경은 즉시 승선원 9명 중 7명을 경비함정으로 이송했으며, 나머지 2명은 해경과 함께 배수펌프 3대를 이용해 배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9명의 선원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영기자

코로나19 유행 지속

10일 359명·11일 404명 확진

제주지역에서 일일 400명 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359명이 발생한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까지 40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253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 최근 일주일 간 도내 확진자 수는 2690명이며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84명이다. 이는 전주 대비 1450명이 증가한 수치다.

또 이날 기저질환이 있던 30대 확진자가 입원 치료 중 숨진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11일 제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상국기자

로 파악됐다. 도내 누적 사망자 수는 184명으로 늘었다.

0.08%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날부터 정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개편 방침에

따라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치료비가 본인 부담으로 변경됐다. 김도영기자 dhkang@ihalla.com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원터프린스
탐나는봉
사라향
하례조생
제라온
미니향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기기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리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궁전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온** 향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만개)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전, 흥진, 카리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만개)
하늘, 팔삭, 세미봉,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론,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원번호 02-022-202-9)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농조합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장마때 분양

유라조생	2년생
천혜향	2년생
감평	2년생
황금향	5년생

천혜향 3,4년생, 황금향 3,4년생 한라봉엠 3,4년생, 남침해 3,4년생 부리는 5년생 양묘계약 합니다.
※ 분양은 2022년 10월 30일
매월을 상귀리 716번지 870평

한림종묘사

010-3690-2453, 010-8820-5769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옥), 황금향, 원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리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전, 오하라베니(궁전변이)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 분묘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로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